

추 모 사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몸짓으로도 이 참담한 현실을 설명하고 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꽃이 활짝 핀 학교 운동장에서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한 반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이 행복했던 수십 명 아이들 중 단 두 명이 살아남았다고 ...

이 사진에서 눈을 쉽게 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막히고 머리가 큰 망치에 맞은 것만 같아 한참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이처럼 힘든 시절이 또 있었을까요?

그것도 천재지변(天災地變)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돈만을 목표로 하는 악덕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유가족의 슬픔에 비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참사가 일어난 지 49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동안 중음천(中陰天)에 머물며 안정된 자리를 찾지 못하던 영가들이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다음 생에서는 이번 생애에 못다 이룬 꿈을 펼치며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족 여러분!

무슨 말로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주신다면, 그것이 고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 당국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참사의 발생 배경과 원인은 물론이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밝혀내 주십시오. 책임이 있는 조직과 인물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오. 이제까지 술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조차 하지 않았던 역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현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구조 활동을 펼친 잠수사들을 비롯하여, 몸과 마음으로 도움을 보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불보살님 전에 고인들의 왕생극락을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58년 5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삼가 올림